



관광 체험

1. 안보관광
2. 휴식레저
3. 자연생태
4. 특산물
5. 맛집멋집



01

안보관광

판문점 板門店

판문점은 남북분단의 아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립의 현장인 동시에 통일을 향한 화해와 대화의 창구이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남북분계선 위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JSA)' 인 이곳 판문점은 남북을 가로막은 휴전선 155마일의 장벽 중 유일하게 남북을 연결해주는 '열린 땅' 으로서 한민족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판문점은 1951년 휴전회담 이후 남과 북의 영구적 회담장소가 되었는데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해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체육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 수차례의 회담이 열린 곳이다.

판문점은 본래 마을사람들이 '널문리' 라고 불렀던 조그만 주막거리였는데 널문리는 '널빤지로 만든 문짝' 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판문점이다.

판문점은 최근 개봉된 영화 「JSA(공동경비구역)」로 잘 알려진 곳으로, UN군에 의해 경비가 이루어지는 이곳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가 설치되어 있어 각국의 감시위원이 상주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은 휴전협정 체결에 이은 1954년 11월 8일자 협약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당시 협약의 주요내용은 남북 4km의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을 설정하여 그 안에 지름 88m의 공동경비구역(DMZ)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판문점은 유엔군과 북한군, 즉 적대 쌍방의 군대가 ‘공점공유(共占共有)’하는 지구상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역으로 남아 있다. 판문점에는 일곱 채의 컨테이너건물을 중심으로 남쪽에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북쪽의 ‘판문각’과 ‘통일각’을 비롯해 몇 개의 경비초소로 이루어져 있고 남북한의 연락사무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판문점 전경

우리는 판문점 하면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로봇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우리 측 사병의 모습이다. 또한 북측의 판문각 쪽에서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도 판문점의 대표적인 연상 이미지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76년 8월 18일 벌어진 8·18도끼만행사건이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을 북한 경비병들이 기습한 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이 피살되고 유엔군 측 경비병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은 사건의 해명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사건 3일 뒤인 8월 21일 오전 7시 유엔사령부는 헬기 26대, 전투기 및 B52 폭격기 3대가 엄호 비행하는 가운데 110명의 한미 양국군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켜 문제의 미루나무를 제거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휴전협정의 산실이었던 판문점이 전쟁의 재발 장소로 돌변할 뻔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내에도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회의장 내에도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이 정중앙에 그어지게 되었다.

자유의 마을 대성동臺城洞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안에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으니 바로 '자유의 마을 대성동'이다. 문산을 마정리 통일대교를 건너 임진강 북안으로 들어가면 민통선 지역인데 우리 지역 민통선 내 마을은 '통일촌 마을'과 '대성동 마을'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해마루촌' 등 3개 마을이다. 그러나 통일촌과 해마루촌은 비무장지대 남방에 위치한 마을인 데 비해 대성동은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특수성을 지닌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통일대교를 건너면 바로 좌측에 통일촌 마을이 보이고 판문점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공동경비구역인 JSA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JSA 사령부를 통과하면 바로 대성동 마을과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갈리는데 좌측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대성동 마을에 도착한다.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로 마을 북동쪽 1km 지점에 판문점이 보인다. 마을 앞 약 400여 미터 전방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그 건너로 북한 마을인 기정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성동 마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정부가 아닌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정부의 통제권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이 마을 주민에게 주어지는데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함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한은 특혜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

대성동 마을은 6·25전쟁 개전 후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주민과 1953년 피난 갔던 청장년들이 귀향하면서 30세대 약 160여 명이 거주, 정착하게 되었는데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휴전협정에 의해 비무장지대 내 주민들의 거주가 허용되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휴전협정 체결 이후 귀향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성동에 귀향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성동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 1963년부터 대성동 마을은 미 제1기갑사단 민사처에 소속된 민정반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마을에 대한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대성동 마을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민정반에 들러 출입을 신고해야만 한다. 민정반은 대성동의 민사행정뿐 아니라 휴전협정을 수행하며 마을 내부 경비, 마을 주



대성동 마을 전경. 국기게양대의 높이가 100m에 이른다

민의 복지, 그리고 구호업무 등에 대한 제반 조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대성동 마을의 주요시설로는 우선 유일한 교육기관인 대성동초등학교가 마을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성동초등학교는 1968년 정식 인가되어 현대식 건물과 첨단 교육자재를 갖추고 이 마을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대성동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 인천, 파주 등지로 학군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진학할 수 있는데 매년 두세 명이 졸업하는 대성동초등학교의 졸업식은 마을의 커다란 잔치로서 우리나라 학교 졸업식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성동 마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민정반 사무실 옆에 설치한 국기게양대이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성동 제2차 종합개발 공사시 세운 국기게양대는 당초 85m로 설계되었으나 국기봉이 짧아 국기의 손상이 심하고 게양과 하기 시에 국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 국기봉의 높이를 15m 더 높여 현재 국기게양대의 높

이는 100m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성동 마을과 마주한 북한 기정동 마을도 종래 80m의 인공기 계양대를 제거하고 약 165m에 이르는 계양대를 새로 만들어 세워 마치 양 계양대의 높이를 가지고 심리전을 벌이는 듯하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중앙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경지정리 하듯이 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며 가운데 중앙로 끝에는 북한 지역과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팔각형 모양의 정각을 지어 북한 지역을 소상히 조망하도록 하였다. 평소에도 이곳에 오르면 북한지역 초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농사철이면 북한의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통일촌과 해마루촌

통일촌統一村

통일촌은 1972년 5월 대통령의 적십자 전방사무소 방문시 특별지시에 따라 1973년 8월 건립된 마을이다.



통일촌 장단콩 마을

당시 통일촌에 입주한 사람들은 제대를 앞둔 하사관 40세대와 예비군 자격을 가진 원주민 40세대 등 총 80세대가 입주하였다.

통일촌 80세대 입주민들에게는 논과 밭 200ha의 농경지가 제공되어 호당 2.7ha의 넓은 농경지를 경작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농기계 보유율이 높은 편이다.

2008년 현재 통일촌에는 148가구 47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4,500만 원 정도다.



해마루촌 전경

마을에는 민통선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군내출장소와 군내초등학교를 비롯해 농산물직판장, 부녀회식당 등이 안보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해마루촌

해마루촌은 진동면 동파리東坡里로 처음에는 동파리 수복마을로 불리다가 마을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동파리 지명을 순 한글로 풀어 '해마루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휴전선과 가까운 이 마을은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초토화되었고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기막힌 신세가 되어 버렸다. 1973년부터 출입영농을 허가하기 시작했지만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져 50여 년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 고향에 가 살게 해달라는 실향민들의 간곡한 탄원으로 1998년 국방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01년 60가구의 입

주를 허용하였다.

2000년 말 마을 부지가 조성되어 2001년 5월 첫 입주가 시작되었고 현재 51가구 14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마을 내에는 마을회관, 농산물직판장, 농기계보관소 등 마을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이 있다.

제3땅굴

6·25전쟁 이후 북한은 계속적인 무력 침략 정책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아 왔다. 대표적인 북한의 무력 도발책 중의 하나가 남침용 땅굴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모두 4개이다. 이를 발견한 순서에 따라 제1땅굴~제4땅굴로 명명하고 있는데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 내에 제3땅굴이 위치해 있다. 1978년 6월 10일 발견된 제3땅굴은 폭 2m, 높이 2m, 총길이 1,635m로 제2땅굴

(철원 소재)과 거의 같은 규모이며 판문점 남방 4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땅굴은 아치형으로 1시간에 3만여 명의 무장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로 이전에 발견된 제1, 2땅굴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었다.

위치가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km, 통일촌 민가에서 3.5km밖에 안 되는 곳으로서 서울까지는 불과 44km이다. 현재는 파주시에서 개발한 민통선지역 내 안보관광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1일 천여 명의 관광객이 제3땅굴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제3땅굴 셔틀 엘리베이터

에는 서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45명이 승차해 약 15분 만에 땅굴 내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DMZ 영상관

분단의 역사와 자연 생태계의 영상을 담은 입체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전시관에는 DMZ 전쟁관련 유물 및 관련 자료의 도판 圖版 전시를 해 놓았다.



DMZ 영상관

도라산역 都羅山驛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의선 종착역으로 도라산역이 신설되었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라산역을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도라산 선언'을 하면서 역사 속의 도라산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도라산은 옛 장단군 중서면中西面, 진남면津南面에 있는 산으로 1905년 경의선 개통으로 읍내리의 장단군 청사가 도라산 북쪽 동장리로 이전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중서면 도라산리 일부와 진현내면의 백연리, 원당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도라산리라 하였다.

1934년 이 지역은 장단면으로 개칭되었고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95호로 파주군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행정구역상 도라산은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속해 있다.

도라산과 관련된 구전 기록을 보면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때때로 이 산에 올라가 놀이를 즐겼는데 그때마다 꼭 궁인宮人 무비無比를 데리고 갔으므로 사람들은 무비를 가리켜 도라산都羅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무비는 태산군泰山郡 사람 시씨柴氏의 딸인데 미모 단정하여 궁중에 뽑힌 여인이었다. 궁중에 들어온 무비는 왕

의 총애를 한 몸에 지녔다고 할 만큼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무비는 후일 낭장 郎將 이곤李琨과 사통私通하여 궁중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이로써 도라산의 경개景概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전에 의하면 879년(경순왕 10)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신라도를 경주에서 송도를 찾아와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니 태조는 낙랑공주를 경순왕과 혼인케 하고 유화관柳花官을 하사하고 정승에 봉하는 한편 경주를 식읍食邑으로 주는 등 극진히 예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슬픔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경순왕은 도라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머물렀는데 그곳이 영수암永守菴이며 경순왕이 조석으로 이곳 산마루에 올라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여 도라산都羅山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935년(고려 경종 3)에 경순왕이 돌아가니 고랑포 뒷산 골짜기(지금의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안장했으며 그 후 낙랑공주는 영수암을 새로 단장하고 경순왕의 화상을 모시고 명복을 비는 한편 영원히 번창하라는 뜻에서 창화사昌化寺라 불렀다고 한다.

도라산은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지역이며 고려 왕조의 수도 개경과 이웃하는 곳에 위치해 고려문화권에 속한 지역이다.

고려 의종毅宗 때 문신들의 사치, 오락, 부화 등 경박한 풍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무신들의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 도라산 북쪽 진서면 조산(현 판문점 부근)에 소재한 보현원普賢院이다.

1170년(의종 24) 8월 왕이 문신들을 데리고 보현원에 놀이를 나갔는데 이때 왕을 호종하였던 대장군 정중부鄭仲夫,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 등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호종하던 문신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날 밤으로 왕을 개성으로 데리고 들어가 중요 문신 50여 명을 또 학살하였다. 보현원은 국조國朝에서 조현역調絃驛을 설치했던 곳이며 인근의 내川가 도원역桃源驛 상류에서부터 내려와 보현원 북쪽에 이르러 천천히 흘러 웅덩이가 되었는데 고려 의종이 독을 쌓고서 못을 만들어 놀이하는 곳으로 삼았던 곳이다. 정중부가 난을 일으켰을 때 문신들을 모두 죽여 시신이 못에 메이게 되니 사람들은 그 못을 조정침朝廷沈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라산역

도라산 북동쪽 옛 장단군의 치소가 자리했던 해발 227m의 백학산白鶴山은 일명 백악白岳으로 장단지長湍志에 보면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신궁지新宮址가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지遺址는 향교동鄉校洞(지금의 장단향교 터 인근) 부근이라는 설이 있다. 『여지승람』에 고려에서 풍덕豐德 백마산白馬山을 우소右蘇로 삼고 백악白岳을 좌소左蘇로 삼았다고 적고 있는데 1360년(공민왕 9) 홍건적의 침입으로 도읍을 남경南京(한양)으로 옮기려고 태묘太廟에서 점을 쳐 보니 불길하여 결국 옮기지 않고 이때 왕이 친히 백악에 거동하여 땅을 살펴보고 산 남쪽에 대궐을 지었는데 주위가 720보步였으며 사람들이 신궁新宮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라산에서 북쪽 정면으로 오관산五冠山이 위치하고 있는데 다섯 개의 작은 봉우리가 마치 관冠처럼 보인다 하여 그 이름이 오관산이다. 고려시대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이 이 산 아래 살았는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송도松都까지 30리 거리를 조석朝夕으로 출사出仕하여 받들어 모셨다. 이리하여 문충공은

효자로서 세상의 칭송을 받았다고 하며 어머니를 위하는 시가詩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목계가가木鷄歌」이다.

木頭雕作小唐鷄 나무를 깎아 작은 당닭 한 마리를 만들어
筋子枯來壁上樓 젓가락으로 짚어다가 벽 위에 올려 앉혔네
此鳥膠膠報時節 이 닭이 꼬끼오 꼬끼오 시간을 알리니
慈顏始似日平西 우리 어머니 얼굴이 비로소 해가 서쪽에 편평한 것과 같아라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CIQ)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CIQ)는 남북한 통행과 물류의 거점으로 하루 최대 4,800명, 연간 172만 명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 개성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개성관광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서 출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라산평화공원

2008년 6월 13일 준공한 도라산평화공원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통일염원과 남북교류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내에는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 형태의 통일동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평화동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모양의 화합동산 등 3개 동산 3만 1,406㎡ 규모로 꾸며져 있다. 각 동산에는 구상나무, 전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등 20여 종 1만여 그루씩 총 3만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었다.



도라산평화공원 조감도

도라전망대

도라산 정상은 우리에게 도라전망대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도라산 정상에는 통신 수단의 하나인 봉수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주지역의 봉수는 전국에 걸친 조직 중 서울의 모악(母岳)과 개성의 송악산(松岳山) 국사당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였는데 문헌 기록에 검단산 봉수(형제봉 봉수), 봉암리 봉수(대산봉수), 도라산 봉수의 세 곳이 존재했었다.

그중 도라산 정상에 위치했던 도라산 봉수는 북쪽으로 개성 송악의 천수산(天



도라전망대

壽山 국사당國師堂 봉수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파주 봉암리 대산大山 봉수에 응했던 봉수이다.

도라산은 167m의 고지로 봉암리 대산과 더불어 비교적 낮은 고지이지만 주위 지역이 평탄하여 감제가 가능한 곳이다. 오늘날에도 전방의 적정을 관측하기 위한 군시설물이 설치된 것도 동일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도라전망대를 오르다가 우측으로 올라가면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봉수대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고 있다.

도라전망대는 도라산 정상에 조성된 북측 조망 전망대로 전방에 개성 송악산을 비롯해 개성 시내가 한눈에 조망된다. 1986년 9월 8일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국방부에서 설치하였으며 북측을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장단역과 열차화통, 그리고 죽음의 다리

최근 경의선 철로와 도로복원 사업은 50여 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비무장지대의 철문을 열게 했다. 남북 합의에 의해 역사적인 경의선 복원이 추진되었고 결국 남북 경의선 철로가 50년 만에 이어지는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분단의 현장, 50년간 멈추어 버린 이곳 현장에는 어느 곳보다도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경의선 철로 복원으로 종착역이던 문산역에서 임진강역을 거쳐 도라산역까지 2개 역이 신설되었는데 6·25전쟁 이전 경의선 열차가 서던 역은 비무장지대 내의 장단역이며 다음 역은 북한 지역의 봉동역이었다. 현재의 도라산역에서 약 1km 전방 남방한계선 너머에 장단역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장단역 플랫폼 못 미쳐 6·25전쟁 때 폭격을 맞아 멈추어 버린 열차화통이 50년 동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곳에 살던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열차는 화물을 운반하던 열차로 문산역을 떠나 장단역에 도착하기 직전 폭격을 맞았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말해주듯 화통 전체에 붉은 녹이 슬어 있으며 잔해 속을 뚫고 자란 나무 한 그루가 모진 고통만큼이나 크게 자라



경의선 열차화통

있다. 원래 경의선 철로가 이 화통이 서 있는 위치 그대로인데 최근 복원할 때 약 3m 간격을 두고 철로를 조정 복원하여 열차 화통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장단역은 6·25전쟁 이전만 해도 역세가 매우 컸던 곳으로 역 주변으로 장단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장단역 플랫폼과 별도로 화차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각종 물산이 이곳 장단역에서 들고났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 이번 경의선 철로 복원사업 과정에서 실시된 지표조사와 현지에 살던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장단역 주변에는 많은 금융조합 건물들이 있었고 인적 물적인 왕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무성한 갈대와 이름 모를 들꽃만이 사계절을 바뀌가며 생명을 키워내고 있다.



옛 장단역 플랫폼



죽음의 다리



옛 장단면사무소

장단역으로 들어가기 약 300m 전에는 철로를 가로지르는 조그만 교량이 남아 있는데 일명 '죽음의 다리'로 불리고 있다. 증언에 의하면 이 다리는 장단에서 연천의 고랑포로 나가는 유일한 국도의 연결 교량으로 경의선 철로 위로 놓인 다리이다. 이 다리가 '죽음의 다리'로 불리게 된 것은 6·25전쟁 시 중공군의 재공격상황에서 이곳에 진을 치고 있던 무수한 우리 측 병사들이 목숨을 당했다고 하는데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당시 이 일대의 전투상황을 볼 때 수많은 아군 병사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어 '죽음의 다리'로 불린 게 아닌가 한다. 죽음의 다리는 철로로부터 8m 높이로 길이 7.2m, 폭 5.5m의 소규모 교량이다. 전체적으로는 보존이 양호한 상태이나 교량 하단부의 부식이 있어 추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다.

장단역에서 서쪽 능선으로 약 700m 떨어진 옛 장단면 동장리에 장단면청사 건물이 남아 있는데 6·25전쟁 이전까지 이곳 장단면의 행정업무를 관할하던 면사무소였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외형상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건물의 골조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부식과 콘크리트의 탈락이 심한 상태이다. 건축의 연면적이 295.4㎡이며 높이가 3.5m의 아담한 건물구조이다.

최근 경의선 열차화통과 장단역지, 죽음의 다리, 옛 장단면사무소 등 4개 전쟁유적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되었다.



임진각

임진각 국민관광지

1천만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임진각

파주는 우리나라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가장 많이 집결되는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목포에서 시작된 국도 1호의 끝자락인 통일로와 평화를 열망하는 뜻을 담아 개설된 자유로가 1천만 실향민들의 한과 아픔을 달래주는 임진각에서 만나고 있으니 과연 파주는 '분단의 끝점이자 통일의 시작'이라는 구호에 딱 맞는 곳이 아닐까 한다.

통일로와 자유로가 만나는 문산을 마정리에는 실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건립된 임진각이 위치하고 있다.

임진각은 1972년 12월 연면적 224㎡(742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은 건물로 임진각 건물 앞에는 망배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 망배단에서는 새해

첫날이면 전국에서 올라온 실향민들이 모여 간소하게 제례 상을 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연중 통일 기원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망배단이 설치된 것은 1985년 9월 26일로 상설제단을 설치하여 실향민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망향·추모·경모의 정을 기원할 수 있도록 건립한 것이다. 망배단은 정중앙에 ‘망배단望拜壇’이라 새겨진 단비를 세우고 그 앞에 상석과 향로를 놓았다. 특히 단비의 양옆으로 각각 3면씩 총 6면의 석축 병풍을 세웠는데 좌로부터 황해도 구월산 연백평야, 평안남도 을밀대 대동강, 평안북도 압록강 뗏목, 강원도 금강산, 함경남도 홍남부두, 함경북도 백두산 천지를 조각하였다.

임진각 내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 먼저 임진각에서 바라다보이는 전면 망배단 뒤로 ‘자유의 다리’가 있는데 본래는 경의선이 지나는 철교였는데 6·25전쟁 때 파괴된 것을 휴전이 성립되고 남북 간 포로를 교환하기 위하여 1953년 휴전 성립 직후 급조된 가교였다. 당시 이 다리를 거쳐 1만 2,773명의 포로가 남쪽으로 귀환했으며 자유를 찾아 넘어온 다리라 하여 ‘자유의 다리’로 명명했다고 한다. 자유의 다리는 목조 평교平橋 형식으로 길이 83m, 폭 4.5~7m, 높이 8m의 구조이며 순수한 나무구조는 아니고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철재를 병용하여 만든 혼합구조이다. 자유의 다리는 임시로 가설한 교량으로 건축적으로 뛰어난 점은 없으나 ‘자유로의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6·25전쟁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임진각 건물의 뒤편으로는 각종 위령탑 및 추모비들이 세워져 있는데 1984년 10월 5일 미얀마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희생된 순국외교사절 위령탑을 비롯해 1986년 9월 14일 김포공항 폭발사고로 희생된 희생자 추모비 등과 미국군 참전비,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 제2사단 6·25참전비 등 6·25전쟁 참전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임진각 내에 2000년 1월 1일을 기해 평화의 종을 만들어 종각 내에 안치했는데 새로운 21세기의 의미를 담기 위해 종의 무게를 21톤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 들어서서는 각종 놀이시설들이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임진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해 못내 아쉽다.

경기평화센터

독특한 피라미드 모습의 건물로 1층은 평화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으로 꾸며져 있다. 1구역 '환영의 장', 2구역 '도입부', 3구역 '갈등과 혼돈의 길', 4구역 '화해와 상생의 길', 5구역 '평화와 통일' 등 5개 구역으로 구성하였고 전쟁과 아픔이 화해와 평화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승전결 방식으로 형상화했다. 2층은 다목적 실과 세미나실로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에 사용되며 대관도 가능하다. 지하 1층은 기획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경기평화센터

통일연못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장소로 연못의 규모는 가로 12m, 세로 36m, 면적이 116평으로 한반도 모양의 단일 연못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한반도 모양으로 만든 통일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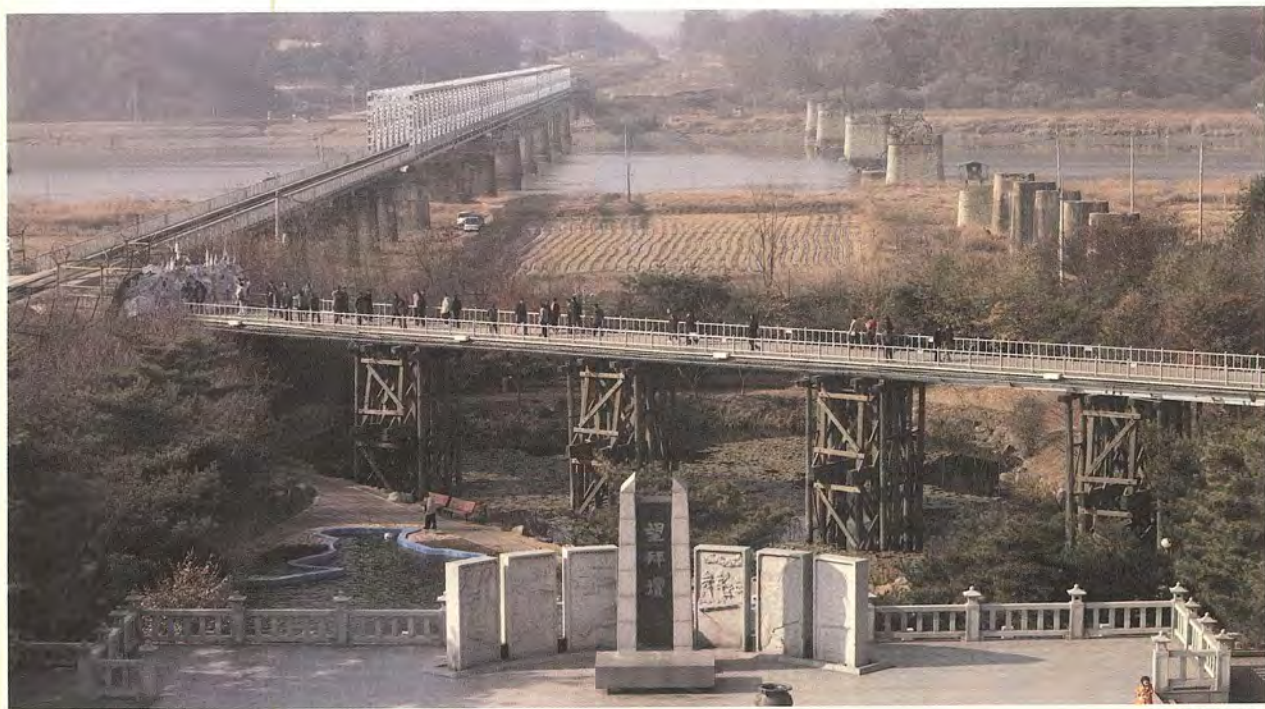
철마는 달리고 싶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판문점 일원에 중단된 경의선 철도를 상징하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열차를 1930년대 실제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열차 뒤편에는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열차카페가 있다.

자유의 다리

1953년 전쟁포로 교환을 위해 가설된 목조형식의 다리로 당시 포로들이 경의선 철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다리를 걸어서 건넜다고 하여 '자유로의 귀환'



자유의 다리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은 임진각을 찾는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끝점이 자유의 다리이며 많은 실향민들이 찾는 곳이다. 자유의 다리는 경기도 기념물 제162호로 지정되어 있다.

평화의 종

평화의 종은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9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모아 건립하였다. 21세기를 상징하는 무게 21톤, 높이 3.4m, 지름 2.2m 규모로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 21번 타종했다. 종각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모지붕의 목조구조로 면적은 21평, 높이는 12.2m이다.



평화의 종

망배단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을 위해 1985년에 제작된 제단祭壇으로 설날과 추석이면 많은 실향민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과 부모에게 배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망배단



보존 처리 중인 열차 화통

경의선 증기기관차 화통

옛 장단역 남쪽 약 50m 지점에 6·25전쟁 때 폭격을 맞아 멈추어 버린 증기기관차 화통을 문화재청, 포스코가 2005년 9월 14일 화통보존을 위한 '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임진각 관광지 내로 옮겨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군 참전기념비

임진각 관광지 내 전적기념물

미국군 참전기념비

1975년 10월 3일 건립된 미국군 참전기념비는 6·25전쟁 기간 동안 참전한 미국군의 고귀한 희생과 빛나는 업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임진강지구전적비

1979년 12월 30일 건립된 임진강지구전적비는 6·25전쟁 당시 격전지인 임진강지구에 대해 국가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반공교육의 산 자료로 활용하고자 건립하였다.



임진강지구전적비

미 제2사단 6·25참전비

1981년 11월 24일 건립된 미 제2사단 6·25참전비는 전쟁 기간 동안 자유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미 제2보병사단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빛나는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미 제2사단 6·25참전비

미얀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1984년 10월 5일 건립한 이 위령탑은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희생된 순국외교사절 및 공식 수행원 17위의 영령을 추모하고 고혼을 위로하며 국민의 반공, 호국의를 다지고자 건립하였다.



미얀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임진각 평화누리

임진각 평화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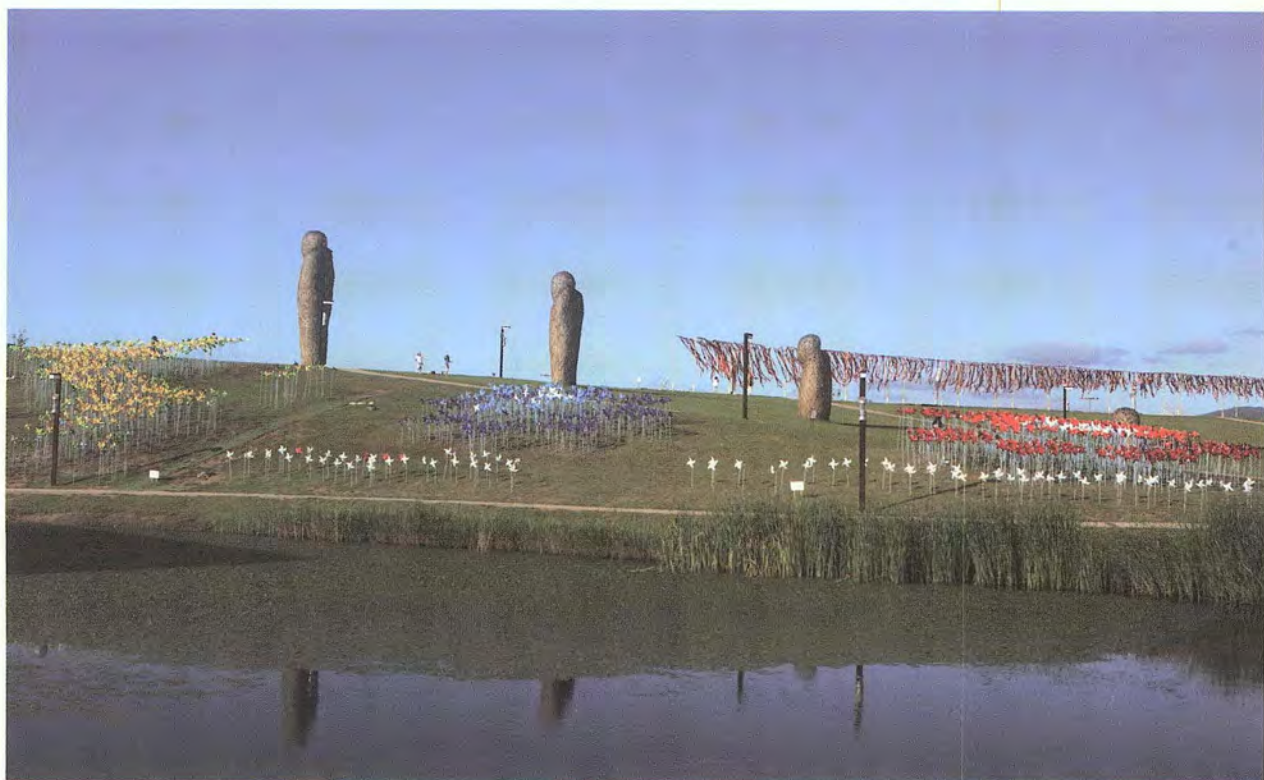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조성된 3만 평 규모의 대형 잔디언덕을 중심으로 한 일상 속의 평화로운 쉼터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 '음악의 언덕'과 수상카페 '카페안녕', '바람의 언덕', '통일기원 돌무지', '생명촛불파빌리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 전시, 영화,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여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시대의 잔상이었던 임진각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평화의 메카로 변모시켜가는 아름다운 곳이다.

카페안녕

연못 위에 떠 있는 수상카페로 다양한 지구촌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평화누리의 작은 쉼터. 다양한 차와 커피, 감미로운 음악, 카페 주변 바람개비의 경쾌한 울림도 일품인 곳이다.



카페안녕



바람의 언덕

오두산 통일전망대

1985년 3월 8일 당시 국토통일원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계획안이 보고되었다. 그것은 민족분단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 계획이 바로 파주시 탄현면의 오두산 정상에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건립하고 이 주변 일대를 통일동

산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0년 들어 통일동산 조성사업계획이 다시 발표되면서 오두산 일원에 통일동산을 개발하고 임진강을 따라 자유로를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계획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정상에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1992년 9월 8일 드디어 개관을 하였고 행주대교로부터 임진각에 이르는 총연장 46.6km의 자유로가 1994년 9월 16일 전면 개통되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의 마을과 산하를 조망할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경

그러나 그 이후 통일동산 지구 내의 통일관련 시설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았으며 최근 이 일대에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비롯해 예술인마을 헤이리 아트밸리, 공원묘지인 동화경모공원 등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오두산 정상에 건립된 전망대로 전면에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합수지점이고 강너머로 북한의 마을과 산하가 잘 조망되는 곳이다. 전망대 내에는 북한실, 통일실, 영상실, 원형 전망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망대 외부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 동상, 망배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

통일공원 統一公園

통일공원은 통일로변인 파주읍 봉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1959년 월릉면 위전리에 건립되었으나 통일로의 개통과 더불어 1972년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통일공원

통일공원은 관내 주둔부대인 1570부대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고혼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공원 내에는 6·25전쟁 순직종군기자 추념비, 김만술 소위 기념비, 이유중 대령 기념비, 충현탑, 육탄십용사 추념탑, 개마고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등이 있다. 문산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일공원 내 전적기념물

이유중 대령 기념비

1981년 12월 23일 이유중 대령의 애국충정심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기리고 반공 애국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높이 받들기 위해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여기 호국의 선봉으로 젊음을 다 바친 이유중 대령의 전진혼을 기린다”라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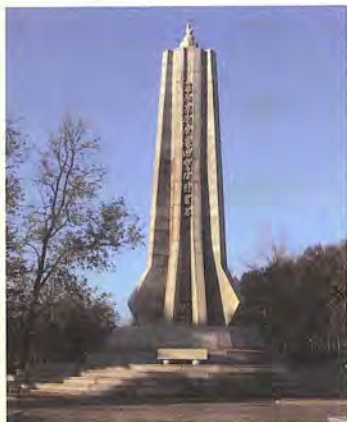


이유중 대령 기념비

개마고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1987년 6월 25일 건립되었으며 비문에는 “백두의 영봉 우러러 보이는 개마고원 줄기 줄기마다 정의의 햇불 뿜뿜 타 오르고 공산화정에 저항하는 젊음의 의기 하늘로 치솟다. … 영웅들이시여! 그대들 공혼 찬란히 빛나리니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자유의 진실 만방에 떨치리라”라고 적혀 있다.

위령탑은 기단 0.5m, 탑높이 12m의 화강석으로 38선의 단결을 의미하는 조형으로 조성하였다.



개마고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임광빈 중령 기념비

1990년 12월 1일 건립되었으며 을지훈련 기간 적 주력섬멸 전투훈련 중 순직한 임광빈 중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사필충성으로 꽃피운 군인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이 비를 건립한다”라고 적혀 있다.



임광빈 중령 기념비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는 6·25전쟁 중 순직한 내외신 종군기자 18명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타자기 모양의 화강암 받침돌 위에 저널리스트의 머리글자 J를 딴 텔레타이프 종이 가 하늘 높이 펜 모양으로 솟아 있고 그 전면에 펜을 쥔 손이 조각된 인상적인 모습이다.

1977년 4월 27일 한국기자협회에서 건립한 것으로 “먹물은 스러져도 기자의 얼은 푸르다”는 글귀가 기자정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



02

휴식레저

공릉국민관광지

조리읍 장곡리에 위치한 공릉국민관광지는 수도권 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관광레저 시설을 갖춘 곳이다. 하니랜드(HONEY LAND)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39만6,000㎡(12만 평)의 광활한 공릉저수지를 끼고 있으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호수와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다.

하니랜드는 야외 성인, 유아 수영장과 물보라 잔디 썰매장, 겨울에는 동시에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긴 3개 코스의 슬로프를 가진 눈썰매장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놀이시설 및 야외 휴식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4계절 가족동반 관광지로 안성맞춤이다.





공릉국민관광지



눈설매장



수영장

벽초지 문화수목원

자연을 배우는 아름다운 쉼터 벽초지 문화수목원은 넓은 잔디광장과 호수가 어우러진 공간에 화훼정원을 갖춘 호젓한 문화공간이다. 곳곳에 공간구분을 위한 구조물들이 맵시 있게 배치되어 있고 지리산 주목, 큰벚나무, 수양버들 등을 포함한 각종 희귀식물, 멸종위기 식물, 자생식물, 100여 종이 넘는 수생식물 및 외래종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단순히 나무와 꽃을 감상하는 차원을 벗어나 아름답고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수목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사방이 유리로 만들어진 복합공간 BCJ Place에는 수목원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한식당과 카페, 자연친화적인 제품만을 판매하는 기념품 숍,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광탄면 창만리에 있다.



주목터널 입구



벽초지 문화수목원 내 호수에 있는 정자와 폭포의 운치가 계절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준다



BCJ Place



잔디광장

쇠꼴마을

쇠꼴마을은 법원읍 금곡리에 자리 잡은 자연마을로 수도권 인근의 종합 농촌체험장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장 쇠꼴마을은 매년 4월 억만송이 배꽃축제를 시작으로 허브축제, 단오축제, 배따기 축제, 메주축제 등 자연을 이용한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이 풍성하다. 허브정원에서는 허브비누 만들기, 양초 만들기, 허브 심기 등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민속관, 수생식물원, 뗏목체험장 등도 운영된다.

또한 마을 내에는 농사체험장, 배밭, 버섯재배장뿐만 아니라 가족 배나무와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가꿀 수 있어 가족들에게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연 속의 건강체험장으로 허브, 참숯, 솔잎, 쑥 찜질방 등도 운영된다.



황토팩 체험



뱃목 탐험



식폴마을 전경



배따기 체험

감악산 산촌마을

적성면 객현리 감악산 자락에 위치한 감악산 산촌마을은 산촌체험장과 산머루단지, 표고재배단지, 야영장 및 산림욕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감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들어선 통나무집에서 편안히 휴식하며 산머루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는 산촌마을은 연간 1만여 명이 찾는 명소이다.

2008년도에는 전국 산촌생태마을 평가에서 경영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새로운 휴식문화와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산촌생태마을은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파주의 새로운 명소로 이름나 있다.



산림욕장



물놀이장



김악산 산촌마을 통나무집



표고재배



산머루체험

탐라국 유일레저

탐라국 유일레저는 수도권 서북부의 종합 휴양지로 명성이 높다.

호수를 낀 다양한 평수의 방갈로, 가족과 단체석으로 구분된 음식점, 물 좋기로 소문난 유일천과 찜질방, 용도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세미나실, 축구, 족구, 농구가 가능한 체육시설, 수영장과 눈썰매장, 어린이생태체험장 등을 갖춘 수도권 4계절 종합 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서울 도심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과 박달산을 끼고 앉은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광탄면 마장리에 있다.



탐라국 승마체험장

조선시대 전국의 군마를 집결시켜 사육하던 군마 훈련장이 있던 이곳 지명인 마장리 馬場里에 위치한 탐라국 유일레저에서는 제주도의 조랑말을 올려 승마 대중화를 위한 승마체험장을 조성해 직접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탐라국 유일레저



수영장



노천폭포탕



행글라이더 체험

마장저수지

마장저수지는 광탄면 마장리에 위치한 중형급 저수지로 최고 수심 25m, 최상류의 얕은 곳도 2m나 된다. 주변 계곡의 경치가 좋아 가족나들이로도 손색이 없다.



애룡저수지

법원을 삼방리에 위치한 애룡저수지는 교통편이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특히 붕어 · 잉어 · 가물치 등 각종 어류가 풍부하다.



발랑저수지

광탄면 발랑리에 위치한 발랑저수지는 야산 계곡에 만들어져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붕어·잉어·항어 등 어종이 풍부하여 여름철 피서지로 잘 알려져 있다.



직천저수지

범원을 직천리에 위치한 직천저수지는 경치 좋고 물 좋은 저수지로 비학산의 아름다운 자태와 이른 새벽 저수지에서 피어 오르는 물안개가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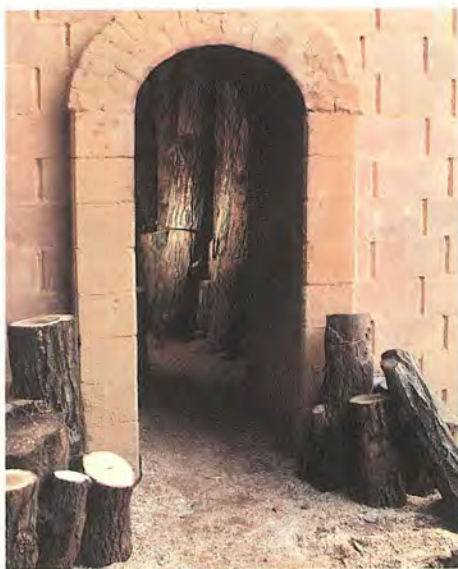
금강산랜드

사계절 신나는 즐거움, 워터파크

금강산랜드는 다양한 물놀이의 워터파크, 전통방식의 참숯가마방, 각종 찜질방과 다양한 놀이시설, 먹을거리로 수도권 최대의 욕장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

금강산랜드에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와 100% 황토로 만든 전통 참숯가마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참숯가마/찜질방을 비롯해 지하 1,000m에서 뽑아 올린 광천수로 즐길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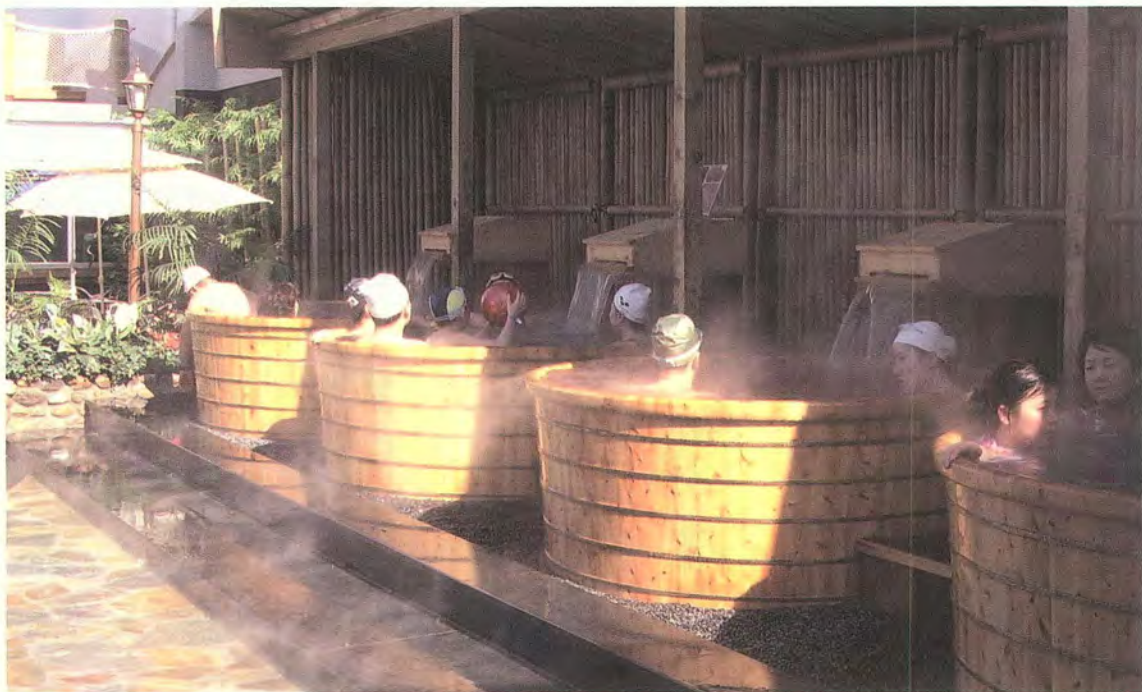
야외에는 골프연습장 시설도 갖춘 종합 휴양시설이다. 월롱면 위전리에 있다.



숯가마



아쿠아놀이터



향나무탕



워터파크



골프장

자유로 아쿠아랜드

자유로변에 위치한 자유로 아쿠아랜드는 전면에 북한과 DMZ, 개성시와 송악산, 그리고 임진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16만 5,000㎡(약 5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1만 1,550㎡(3,500여 평)의 규모로 동시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 목욕이 아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성 사우나를 갖춘 단일 욕장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아쿠아랜드에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재활, 물리치료를 위하여 병원치료와 병행, 대체의학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수 치료시설과 동일한 원리로 설계 시공되어 있는 7가지 목욕코스를 갖추고 있는 주와주와탕과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모리시타진판 제약회사가 개발한 한방 생약을 원료로 하여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야쿠진도탕 등을 갖추고 있다. 탄현면 문지리에 있다.



아쿠아랜드 전경



주와주와탕

오두산랜드(인삼약천)

일명 인삼약천으로 불리는 오두산랜드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인 탄현면 갈현리 장릉 입구에 위치한다.

인삼약천은 인체의 각 기능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조형을 바로잡는 효능이 있으며 각종 질병예방, 도시민의 스트레스 해소, 운동부족에서 오는 자체 회복능력을 복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한방비법 기능 욕탕으로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인삼약천은 인삼목욕탕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인삼탕 외에도 천연욕탕, 쑥탕, 자스민탕, 녹차탕, 옥건식/습식 사우나, 휴게실, 발건강관리센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



오두산랜드

서원밸리골프장

금병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품위와 세련된 현대 감각이 가미된 수준 높고 아름다운 골프장이다. 광탄면 발랑리에 있다.



서서울골프장

광탄면 용미리 우암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스 전체에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의 완경사와 적당한 높이의 구릉, 인공호수 등 전형적인 자연 친화형 골프장이다. 광탄면 용미리에 있다.



카트랜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 옆에 위치한 카트랜드는 자동차의 원리를 축소한 미니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카트는 레저 용 및 레이싱용으로 구분되며 차체는 간단한 엔진, 시트, 타이어의 구조로 노면에서 차체 바닥까지 지상고가 4cm로 안전하고 전복의 위험이 없다. 기어 조작이 필요 없고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만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운전요령을 배우기가 아주 쉬우며 민첩성과 순발력, 지구력, 판단력, 담력 등을 키워준다.

카트는 신종 레저 스포츠로 체험을 통해 자동차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운전기술을 조기 습득할 수 있으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 경주장의 길이는 600m로 카트를 한 번 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7~10분 정도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경기장을



카트랜드 경기 모습

10바퀴 정도 돌 수 있다. 미니 경주차인 만큼 코스도 다소 짧아
아쉽지만 오픈카인 데다 노면과의 마찰이 고스란히 전해져 체
감속도는 실제속도의 두 배이다. 빠른 스피드를 유지하며 코너
링을 할 때면 노면을 타고 오르는 차체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
져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다.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통일전
망대 주차장 내에 있다.





03

자연생태

감악산유원지

감악산은 예로부터 경기5악의 하나로 꼽힐 만큼 폭포, 계곡, 암벽 등을 고루 갖춘 산으로서 정상에선 임진강과 개성의 송악산 등이 두루 눈에 들어오며, 반대편 봉우리인 임꺽정봉의 산세 또한 수려하다. 서쪽 산자락에는 소담한 범륜사가 옛 사찰의 흔적을 간직하는가 하면 절 아래쪽으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높이 약 30m의 운계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영국군전적비

6·25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전해 적성 설마리 계곡에서 공산군의 포위 속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의 제1대대와 제170경 박격포대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감악산



임객정봉



운계폭포



범륜사

심학산 산림욕장

심학산(해발 200m)은 자유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1~2시간 걸리는 등산로가 2개 설치되어 쪽 뺨은 자유로와 한강, 김포, 관산 반도를 바라보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심학산 걷기



심학산 등산로

박달산 산림욕장

박달산은 서울이나 인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편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림욕장과 자연학습원을 둘러보고 등산을 하며 하루 쉬었다 가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369m로 낮은 산이지만 동서로 길게 늘어선 주능선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좋은 산행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초리골 산림욕장

초리골 산림욕장은 해발 300여 m의 야트막한 산들이 능선을 타고 이어지면서 곳곳에 야생화와 깊고 아름다운 계곡이 이어져 있다. 등산로 중간에는 무장 남파된 김신조 부대가 침투했다 해서 유명해진 일명 김신조 비트가 보존되어 있다.



초리골

월룡산 등산로

월룡면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직원과 시민들의 쾌적한 산림 휴양을 위해 해발 229m 등산로를 정비하였다. 등산로 가는 길에 나무다리, 운동기구, 의자 등이 있고 정상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월룡산 등산로

고령산 등산로

광탄면 영장리 산42번지 입구~도솔암~보광사 3km 구간까지
중간에 로프난간, 목계단 등이 설치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고령산

임진강 적벽 赤壁

조선시대 문인 호곡 남용익 선생이 임진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임진강8경 중 최고의 절경으로 꼽은 것이 임진강 적벽이다.

임진강 적벽은 60만 년 전에 생성된 수직 절벽으로 임진강 유역 전 구간에 걸쳐 길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장파리 적벽과 자장리 적벽, 주월리 적벽 등이 파주지역 임진강 적벽으로 대표되며 자장리 적벽과 마주하고 있는 연천군 원당리 적벽은 임진강 적벽의 절정을 이룬다.

자장리 적벽과 원당리 적벽은 마치 호미로 일부러 층을 만들어 놓은 듯 정교하며 적벽 아래에는 작은 동굴들도 발견되는데 6·25전쟁 때 피난처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주민 80여 명이 자장리 적벽 아래 동굴 속에서 모두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임진강 적벽은 사시사철 그 모습을 달리한다. 특히 가을이면 적벽을 타고 자라는 담쟁이 덩굴이 붉게 물들어 그 모습이 마치 붉은 적벽에 불꽃이 피어나는 모습처럼 보인다.



임진강 적벽의 단애모습



어유지리 적벽



자장리 적벽

황포돛배

매운탕 마을로 소문난 적성면 두지리에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황포돛배가 2004년 3월 첫 운항하였다. 두지리 선착장을 출발, 고랑포구 앞을 회항해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분단 반세기 만에 끊겼던 임진강 뱃길이 복원되었다. 황포돛배는 조선시대 조운선을 모델로 15단계의 공정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재현했는데 무게 6.5t, 길이 15m, 폭 3m의 규모로 돛에 의해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력으로 움직인다.

운항구간에는 자장리 적벽과 원당리 적벽의 절경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으며 미수 허목 선생의 ‘괘암掛巖’ 암각문, 연천 호로고루성 등 역사유적도 관찰할 수 있다.

선장이 직접 들려주는 구수한 입담과 주변 설명은 황포돛배 관광의 감흥을 두 배로 해 준다.



황포돛배 진수식



임진강 뱃길과 황포돛배



황포돛배

임진강 철새

파주시의 동서를 가르는 임진강 연안에는 사시사철 철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임진강 북안지역인 장단반도, 초평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각종 철새들의 낙원이다.

자유로 교하구간은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도래지로 최근엔 생태계의 변화로 재두루미 대신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다양한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독수리월동지

민통선지역인 장단면 거곡리 장단반도는 해마다 겨울이면 몽골지역에서 날아온 독수리들이 겨울을 보내는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이다.

2005년에는 약 1,200여 마리가 월동을 했으며 2006년에는 450여 마리가 이곳에서 월동을 했다.



두루미



재두루미



임진강 철새



독수리

물푸레나무

파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푸레나무 두 그루가 상징처럼 자라고 있다.

파주의 동쪽지역인 적성면 무건리의 천연기념물 제286호인 적성 물푸레나무와 파주의 가장 서쪽지역인 교하읍 다울리에 경기도 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된 교하 물푸레나무가 파주를 굳게 지키고 서 있다. 물푸레나무는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물을 푸르게 만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예로부터 농경민족인 우리에게 농경도구인 도리깨의 재료로 많이 이용돼 친숙함을 지닌 나무이다.

적성 물푸레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 중 보기 드문 노거목으로 무려 13.5m에 달하며 수령은 약 15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적성 물푸레나무





교하 물푸레나무

교하 택지지구에 있는 교하 물푸레나무는 적성 물푸레나무에 비해 수령(樹齡)은 적으나 수세 및 성장상태가 훨씬 양호하다. 최근 교하 물푸레나무가 위치한 아파트단지에서 지역주민들 축제인 물푸레나무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04

특산물

임진강쌀

임진강변의 비옥한 토질과 맑은 물, 맑은 공기 등 청정환경에서 재배되는 임진강쌀은 영양이 풍부하고 밥맛 좋기로 유명한 고품질의 쌀이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대표적 진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파주에서 재배되는 쌀은 친환경농법을 이용하고 제초제 살포를 하지 않는 유기농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유기농 벼



임진강쌀

파주개성인삼

세계명품 고려인삼의 맥을 잇는 파주개성인삼은 민통선 북방지역과 감악산의 맑은 기운을 받아 생산되며 인삼의 주요 약용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많아 약효가 뛰어나고 국제시장에서 최고급으로 인정받는 6년근 삼이다.

파주개성인삼은 수확 후 특별히 가공하지 않은 수삼, 수삼의 껍질을 벗겨내 햇볕에 말려 가공한 피백삼, 수삼을 원료로 증숙, 건조과정을 거쳐 만든 홍삼 등이 있다.



파주개성인삼

파주장단콩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의 귀중한 식량자원으로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영양과 건강을 지켜온 콩. 최근 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식품의 최고로 각광 받고 있는 식품 중의 하나가 콩식품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콩으로 눈이 희며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하여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으로 선정된 장단백목(長端白目)은 장단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토종콩에서 순계 분리하여 농가에 보급된 콩으로 몇 년 후면 탄생 100년을 맞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 50여 종의 콩 품종들은 장단백목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유전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장단콩

1970년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로 옛 장단콩의 명맥을 유지하여 재배되어 오다가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향토 지적재산인 장단콩을 브랜드화하였고 특화작물 재배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첫 파주 장단콩축제를 개최하였다. 초기에는 20ha에 불과하던 재배 면적이 웰빙바람을 타고 현재는 700ha로 늘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 농산물이 되었다. 파주 장단콩은 전국 콩 생산량의 1%를 차지하며 최고의 품질로 각광 받고 있으며 대부분 민통선 내인 장단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파주 장단콩은 일교차가 크고 마사토 토질의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되며 항암 및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본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에 비해 약 50% 이상 높다.

임진강 참게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임진강 참게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황복과 함께 임진강의 별미이다. 매년 9~11월에 알을 가득 배고 임진강을 거슬러 오르는 자연산 참게 맛을 보기 위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참게 한 마리면 밥 한 그릇 비운다'는 말이 있듯 참게 딱지에 밥을 비벼 먹으면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푹딱한다. 고소함에 반하고 감칠맛에 또 한 번 반한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계절 참게의 속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고 장도 딱차 맛도 제일 좋다. 임진강변 매운탕집에서는 가을철 최고의 밥도둑 참게를 1년 내내 맛볼 수 있게 참게장도 직접 담가 판매한다.

참게장은 장을 담가 바로 먹어야 하는 꽃게장과 달리 두 달 정도는 장에 담가 재워야 맛이 낸다. 특히 참게장



임진강 참게

은 1년이 지나도 살이 삭지 않아 사시 사철 맛볼 수 있다.

임진강 참게는 매운탕에도 필수이다. 민물고기 매운탕에 참게를 넣고 오래 끓여 국물을 낸 참게 매운탕은 시원한 국물은 기본이고 참게 특유의 구수함이 감칠맛이다.



황복

황 복

임진강 황복은 일반 복어와 달리 평소에는 바다에 살다가 4월 중순~6월초 산란을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다. 임진강 어부들은 이맘때쯤 본격적인 황복잡이에 나선다. 임진강에서 잡히는 황복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운동량 때문에 살에 탄력이 있다. 매년 전국의 미식가들이 황복을 먹으려고 임진강을 찾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잡히는 것으로 알려진 황복은 한강을 제외하고는 산란지로 임진강이 유일하다. 그러나 많은 양이 잡히질 않아 일반 복어 가격에 약 4배가량 비싸다. 따라서 파주어촌계에서는 2003년부터 임진강에 해마다 3톤가량의 황복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방류사업의 효과로 한때 멸종위기까지 갔던 황복이 2005년에는 3,000kg, 2006년 5,800kg에 이어 2007년에는 7,000kg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감악산머루

경기 5악의 하나인 감악산에서 재배되는 감악산머루로 만드는 산머루즙은 독자적인 저온 숙성기술과 균형잡힌



감악산머루



파주배

맛을 지닌 산머루 원액이며 최근 개발한 감악산머루로 만든 와인은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파주배

파주의 금부배는 단맛이 뛰어나다. 인위적인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맑은 공기 속에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고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 당도가 평균보다 높은 13~14도에 달한다. 발효유분을 흠뻑 먹고 자라서 향기도 좋은 최고의 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천현 삼색포도

북위 38° 인근인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생산되는 파주 포도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맛과 향이 으뜸이다. 주로 법원, 광탄, 적성지역에서 포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 법원을 천현포도가 경작면적이 가장 넓다.

포도농사는 강우량에 따라 풍·흉작이 좌우되기 때문에 포도밭에 비막이 시설을 해서 농약살포를 줄이고 포도나무가 충분한 햇빛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가지를 고루 배치하여 밀식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며 좋은 대목에 접목재배를 해 수세를 안정되게 유지해야 한다. 또 과감하게 착과량을 조절하고 충분히 익혀 출하시키는 것이 맛있는 천현포도 생산의 비결이다. 더불어 천현포도는 이른



포도

봄 조피작업을 통해 겨우내 묵은 해충을 방제하는 것부터 시작해 봄, 가을 퇴비와 함께 활성탄을 토양에 살포해 줌으로써 유해세균을 억제하고 미생물에 활력을 주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다.

최근 법원을 동문리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성광용 씨는 같은 밭에서 생산된 3가지 색상의 포도를 한 바구니에 담아 '삼색포도'를 출하하고 있다. 청수(연두색), 홍이슬(붉은색), 탐나라(검은색) 등 3종의 희귀포도를 재배해 삼색포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버섯

버섯

청정환경 속에서 숙련된 기술로 재배되는 파주 버섯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기능성 성분이 뛰어나다. 자살체의 군사조직이 치밀하고 육질이 뛰어나고 맛이 탁월한 새송이버섯과 면역기능, 호흡기강화, 항암작용 등의 효능을 보이는 동충하초 등이 있다.

DMZ벌꿀

DMZ벌꿀은 무공해 청정지역인 DMZ 들꽃에서 채취한 건강식품이다. 신비의 천연 향생물질인 '프로폴리스'가 풍부하여 '신의 선물'이라고도 한다. DMZ벌꿀은 순하고 부드러우며 무기질성분이 풍부하다.



양봉



05

맛집 멋집

해거름 무렵 임진강 자유로변에 늘어선 음식점들은 강 하구의 낙조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찾아 온 미식가들로 가득하다. 파주의 맛집 멋집 기행은 연인, 가족과 함께 시원하게 펼쳐진 강변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경험이다. 깔끔하게 단장한 음식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노라면 자연과 맛의 절묘한 조화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청정자연 환경을 갖춘 임진강변의 매운탕 음식점에서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참게와 황복, 쏘가리 등 민물고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식품의 대명사가 된 장단콩 요리 음식점들도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맛고을 음식문화거리(탄현면 성동리, 대동리)



임진강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위치해 있는 탄현면 성동리, 대동리 일대에 위치한 맛고을 음식문화거리는 경기도에서 2007년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한 곳이다.

프로방스 등 서양식 레스토랑을 비롯해 매운탕, 오리구이, 시골밥상 등 향토음식점 40여 개소가 밀집되어 있다. 인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 예술마을, 영어마을,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 고려 통일대전, 영집궁시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프로방스

프로방스

탄현면 성동리 맛고을 음식문화거리를 대표하는 프로방스는 연중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프랑스풍의 건물과 다양한 솜 등이 갖춰져 있어 특히 젊은이들의 명소가 되고 있다. 프로방스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는 곤텔리에라 스파게티, 해물스튜와 스페셜 A~C코스까지 다양하게 있다.



드림팔레스

드림팔레스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한 드림팔레스는 만화가 오일 룡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살아 숨쉬는 바닷가재와 전복을 주재료로 사용해 바닷가재 요리와 전복스테이크 등 바닷내음의 신선함을 맛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다.



옛날시골밥상

옛날시골밥상

성동리 음식문화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전통 한정식집인 옛날시골밥상이다.

이곳에서는 집에서 직접 만든 두부, 도토리묵과 여름에 텃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야채로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

자유로 성동 IC에서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향으로 들어서면 각종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를 많이 찾고 있어 전통한식과 장단콩요리음식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인근에는 자유로 자동차극장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 카트랜드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음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다.

통일동산 두부마을

오두산 통일전망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일 색다른 반찬을 재래식 방법으로 만들어 임진강쌀로 지은 밥과 함께 맛볼 수 있다. 황토방에서 발효한 청국장, 다슬기와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가 일품이다.



통일동산 두부마을

김철 1080

우리 음식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위해 전국적인 체인을 갖추고 있는 김철 1080은 녹쌈정식, 해물칼국수, 흑미수제비, 녹차물만두 등이 주요 메뉴이다.



김철1080

오두산통일전망대 주변 음식점들

- 통일동산두부마을
- 김철 1080
- 산에들레
- 산내음

임진강변 매운탕집

자유로와 문산 당동IC-적성 간 37번 국도를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임진강변에는 사시사철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임진강에서 잡아 올린 민물고기로 얼큰하게 끓여내는 매운탕을 맛보기 위해서이다. 이제는 파주의 특별한 음식으로 매운탕을 주저 없이 권할 만큼 파주 임진강변에는 많은 매운탕 맛집들이 알려져 있다.



반구정 나루터집

반구정 나루터집

문산을 사목리 황희 선생 유적지와 인접한 반구정 나루터집은 고풍스런 한옥 외관이 멋스러운 집이다. 나루터집 뒷마당에서 숯불에 구워낸 장어구이는 그 맛 또한 일품이다. 특히 나루터집 장어의 맛은 한 번 구운 장어에 다시 한 번 양념을 발라 굽고 양념은 장어뼈를 고아 우려낸 육수에 14가지 천연재료가 들어가 독특한 맛을 자아낸다.



장단가든

장단가든

임진나루 황복마을에서도 가장 손님이 많이 찾는 음식점이 장단가든이다. 장단가든은 임진강에 배를 띄워 매일 아침 직접 잡아 올린 싱싱한 고기들과 100% 직접 지은 무공해 식단으로 유명하다. 시에서 매년 선정하는 모범식당으로 유명해진 지도 꽤 오래되었다. 1997년 문을 연 장단가든은 웰빙을 고집한다. 민통선 내에서 농사지은 콩, 고추, 쌀 등이 장단가든 식단의 주재료로 사용된다. 특히 매운탕의 국물맛을 내는 데 꼭 필요한 고추장은 직

접 농사지는 고추를 태양에 말려 고추장을 담가 사용한다.

강촌매운탕

적성면 두지리 강촌매운탕은 임진강에서 주인이 갓 잡은 생선으로 끓여내는 칼칼한 매운탕의 깊은 맛이 단골 고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강촌매운탕만의 고유한 소스는 민물 매운탕 특유의 맛을 내준다. 쌀과 고추, 상추, 오이 등 야채도 직접 농사지는 재료여서 신선하다.



강촌매운탕

임진강변 음식점들

- 반구정나루터집
- 내포나루터
- 임진강나루터집
- 장단가든
- 성터나루터집
- 지중해
- 반구정어부집
- 임진강매운탕집
- 강촌매운탕

영장리 토속음식점

894년 신라 진성여왕 때 도선국사가 창건한 한수이북 최대 사찰인 보광사 인근에 위치한 영장리 토속음식마을에는 손두부, 청국장, 보리밥집, 전통 한식 등 30여 개의 토속음식점들이 있다. 인근에 보광사를 비롯해 소령원, 수길원, 유일래저, 마장저수지 등이 위치한다.



명가원

명가원

고급스러운 전통한옥건물과 더불어 고풍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식집이다. 수라상 정식, 정1품, 중1품 정식 등 메뉴뿐만 아니라 주변 장식과 풍광이 운치를 더 해준다.

영장리 주변 음식점들

- 명가원
- 은진식당
- 두부마을
- 옛날밥집
- 산내들밥집
- 참두촌
- 옛집두부마을

특별한 먹을거리

장단콩 요리

파주 장단콩이 웰빙식품으로 유명해지면서 파주 장단콩을 재료로 하는 장단콩요리 전문음식점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이 두부요리로 두부보쌈, 두부전골, 손두부 요리 등이 있다.

장단콩 전문음식점으로는 통일촌 장단콩마을과 문산읍 마정리의 통일촌장단콩마을, 탄현면 갈현리의 복두부집, 탄현면 성동리 통일전망대 입구 통일동산두부마을, 파평면 장파리 장단콩두부집 등이 유명하다.



장단콩 요리



부대찌개

부대찌개

6·25전쟁 후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미군 부대에서 반출된 식재료를 이용해 야채와 함께 끓여낸 찌개가 부대찌개이다.

특히 미군부대가 밀집되었던 문산지역에는 30여 년이 넘게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문산을 시내 초입에 일명 삼거리부대찌개를 비롯해 부대찌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초계탕

초계탕

법원읍 법원4리 초리골에 위치한 초계탕집은 4대째 가업으로 내려오는 전통 궁중 닭요리인 초계탕을 개발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계탕은 초(식초), 계(겨자), 탕(육수)을 합친 말로 ‘오이초절임과 겨자채무침에다 육수를 부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닭을 삶아 기름기를 빼내고 잘게 찢어 함께 버무리면 초계탕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민물매운탕

매운탕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풀고 각종 야채에 생선을 넣어 끓여낸 것을 말한다. 생선에 따라 그 맛을 달리하고 얼큰한 국물이 속을 확 풀어줘 많은 미식가들이 즐겨하는 음식 중의 하나이다.

파주 임진강변에는 유난히 매운탕 음식점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임진강변을 끼고 살아 온 파주사람들에게 민물고기 매운탕은 가장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청정 임진강에서 잡아 올린 쏘가리, 메기, 빠가사리 등을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어 육수를 내고 미나리, 깻잎 등 야채를 첨가해 비린 맛을 없애면 얼큰하고도 담백한 민물매운탕이 완성된다. 여기에다 가을철 장이 꽉 찬 참게라도 한 마리 넣으면 얼큰한 맛에 참게의 구수한 맛이 배어나와 그 맛이 일품이다.

직성에서부터 교하까지 임진강변을 따라 늘어선 수십여 곳의 매운탕 음식점들은 수도권 최대의 미식가들이 찾는 맛집들이다. 특히 임진강에서 직접 바로 잡은 고기를 이용해 매운탕을 제공하는 어선을 보유한 매운탕집에는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매운탕